

■ 업계동정 ■

(株)光明機電, 38KV 진공차단기 IR52 장영실상 수상

(株)光明機電(代表 : 鄭永秀)의 38KV 진공 차단기가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광명기전은 '80년대 초부터 산업용 전력기기의 핵심분야인 중전기기 생산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전기기를 생산하고 대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동사는 자금에서의 상대적인 열세를 기술력으로 만회하기 위해 각종 부품의 국산화에 집중적인 연구를 해 왔다.

이미 진공차단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진공벨브(Vacuum Interrupter)의 국산화에 성공해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광명기전은 국내시장 석권과 수출시장 확대가 유망한 아이템으로 3만8,000V급 진공차단기를 선정하고 '9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 갔다. 동사는 연구과정에서 전계해석과 자계해석 등 기본원리를 터득한 것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

아무리 외국제품을 모방해도 기본 원리를 알고 있지 못하면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명기전은 연구의 기초분야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광명기전은 이번 제품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다른 제품에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외국의 기술제휴에 의존해 왔던 제품 개선과 AS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

국외시장에서도 2~3개의 동급 모델이 있지만 광명기전의 제품이 단순·소형화에 성공한 데다 가격도 기존 제품의 40% 선에 불과하다.